

중국의 “인터텍스타일 상하이 2006”

- 기능이나 패션 소재를 크게 향상

아시아에서 가장 큰 국제적 의료용(衣料用) 텍스타일 전시회인 “인터텍스타일 상하이 - 어패럴 패브릭”이 2006년 10월 25~28일(4일간) 중국국제무역 촉진위원회 방직행업분회(行業分會), 중국방직신식중심(信息中心), 메세 프랑크푸르트<홍콩>의 주최로 상하이 신국제박람중심에서 개최되었다(10월 25일은 개회식 초대객에 한정된 스페셜 바이어즈 데이였음). 이번 전시회는 출전규모(出展規模), 관람자 수가 모두 과거 최고가 되었으며, 이와 함께 질적(質的)인 충실(充實)도 엿보였다.

“인터텍스타일 상하이 2006”에는 전시면적이 전번과 비교하여 28%가 넓은 8만 5백㎡로 25개국 지역으로부터 32%가 증가한 2,029개사(이중 중국은 1,413개사)가 참가하였다. 해외로부터의 출전(出展)은 이탈리아, 한국, 독일, 포르투갈, 일본, 터키, 대만, 타이 파키스탄 등의 9개국 지역이 독자적인 파빌리온(pavilion)을 꾸몄다.

사용호관은 서(西) 1~5호관과 동(東) 1, 2호관으로 7개관이었다. 이번부터는 어패럴 부자재(副資材)의 전시장소를 서(西) 5호관에 새로 마련하였다. 부자재 관련 기업의 출전수(出展數)가 68% 증가로 급증하였다. 또한 실 전시회 ‘얀 엑스포(Yarn expo)’도 서(西) 5호관과 병행하여 열렸다.

입장자수는 3일째 되는 27일 오후 3시 시점(時點)에 연(延) 4만 2,119명(이중 중국 내에서 3만 4,427명)이 관람하여, 작년 4일간의 4만 5,137명과 비슷

한 성황(盛況)이었다. 성황의 실감(實感)은 출전자(出展者)에 따라서 다르다. 어느 부스(booth)나 차별 없이 무작정으로 관람하며, 카탈로그 등 무엇이든 가지려는 과거와 같은 관람객의 자세가 변화하여, 목적이나 기업을 골라가며 방문하기 때문에 짐작된다.

이번에 넓게 지적된 것은, 중국제 소재가 질적으로 크게 향상하였고, 다양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화섬전시관이 된 서 4호관에서는 방수투습(防水透濕), 흡한속건(吸汗速乾), 도전(導電) 등의 기능소재나 극세사(極細絲)로 만든 패션 소재가 다채(多彩)롭게 전시되었다.

동 1호관에는 기능 소재의 전시장이 설치되어, 최종일(最終日)까지 관람자가 밀려들었다. 울(wool)을 주제로 한 서 3호관, 면을 주제로 한 동 2호관에서도 품질향상과 다양화가 크게 이루어지고 있음이 잘 전시되어 있었으며, 특히 면 관계에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지적되었다.

이와 같은 호평을 받으며 중국 부스의 성황이나 상담(商談)에 열중하고 있는 광경도 많이 볼 수 있었다. ♣